

벤투호, 월드컵 예선 첫 경기 승리 장식

한국의 벤투호가 투르크메니스탄을 꺾고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첫 걸음을 승리로 장식했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국 축구 대표팀(FIFA 랭킹 37위)은 10일 저녁 아시가바트 코페르다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 원정 1차전에서 투르크메니스탄(132위)을 맞아 우세한 경기력을 선보인 가운데, 나상호(FC도쿄)의 전반 13분 선제골, 정우영(알사드)의 후반 37분 오른쪽 프리킥 쐐기골로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벤투 감독이 구사한 4-1-4-1 또는 4-4-2 포메이션에서 오른쪽 풀백 이용(전북 현대)이 적극적인 측면 공격가담에 이은 날카로운 크로스 벤투호 공격의 활력소로 작용했다. 나상호의 감각적인 선제골도 이용의 오른쪽 측면 크로스 뒤 공이 상대 수비 맞고 문전에서 흐르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반면 김진수(전북 현대)가 선발로 나오고 후반 40분 홍철(수원 삼성)이 대체 투입된 왼쪽 풀백진의 활약은 상대적으로 미미해 좌우풀백의 균형적 활약이 숙제로 등장했다.

이날 벤투호의 새로운 공격카드로 주목을 끈 나상호는 오른쪽과 왼쪽 측면을 넘나들며 빠른 돌파력이다 득점력(A매치 8경기 만에 데뷔골까지 선보이며 합격점을 받았다. 경

기 초반 4-1-4-1 포메이션에서 오른쪽 미드필더를 맡아 이용과 좋은 호흡을 보여줬고, 전반 중반 이후 4-4-2 포메이션 때는 왼쪽으로 옮겨 상대 측면을 공략했다. 그의 발끝로 권창훈(프라이부르크) 등과의 측면 미드필더 주전경쟁이 치열해지게 됐다. 수비형 미드필더 정우영은 공수 연결 고리로서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다시 프리킥 골결정력을 보여주며 프리킥 세트피스 상황이 그의 유효한 득점루트를 입증시켜줬다.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은 이날도 중흥무진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좀처럼 슛기회를 잡지 못하고 골맛을 보지 못했다. 대표팀에서 골결정력을 높이는 게 여전히 과제로 떠올랐다. 이날 황의조(지용맹 보르도)와 투톱을 잡지 말기도 하고, 왼쪽과 오른쪽 윙포워드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그라운드를 누볐으나 몇차례 슛은 불발로 그쳤다. 손흥민은 지난해 8월 벤투 감독 취임 이후 13경기에서 단 1골(지난 3월 26일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에 그치고 있다.

첫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챙긴 벤투호는 올해 10월 10일 경기도 화성에서 스리랑카와 조별리그 안방 2차전, 5일 뒤 평양에서 북한과 원정 3차전, 11월 14일 레바논과의 원정 4차전을 앞두고 있다.

임성재, 아시아·한국인 최초 PGA신인상 수상

임성재(CJ대한통운, 21)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8-2019시즌 신인상을 거머쥐었다.

12일 '엔터뉴스'에 따르면 PGA 투어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임성재가 2018-2019시즌 신인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PGA 투어가 신인상 제도를 도입한 1990년 이후 아시아 선수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임성재가 처음이다. 신인상은 동료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임성재는 2014년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다. 2015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와 일본투어(JGTO) 큐스쿨을 단번에 통과한 임성재는 한국과 일본을 부지런히 오가며 경험을 축적하고 2017년, 마침내 미국 무대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PGA 투어 2부격인 웹닷컴투어 큐스쿨을 넘어서야 했다. 임성재는 그해 12월 치러진 큐스쿨에서 최종합계 26언더파 262타로 2위를 차지해 미국행이라는 1차 목표를 가뿐히 달성했다.

임성재는 PGA 투어 데뷔전부터 대형사고를 쳤다. 바하

마 클래식에서 최종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카를로스 오티스(멕시코)의 추격을 3타차로 제치고 트로피에 입을 맞추더니 두 번째 대회인 아바코 클래식에서는 1타차 준우승을 차지했다.

두 대회의 활약을 발판 삼아 상금 순위 1위에 오른 임성재는 끝까지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임성재가 등장하기 전까지 웹닷컴투어에서 시즌 내내 한 선수가 상금 순위 1위를 지킨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시즌 내내 빼어난 활약을 펼친 임성재는 투어 최고 영예인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한국 선수로는 처음이자 역대 최연소 수상자로 이름을 남겼다.

한 선수가 웹닷컴 투어와 PGA 투어 신인상을 연달아 수상한 것은 1997년 스투어트 싱크에 이후 22년 만이다.

임성재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애 한번 뿐인 신인상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좋다."면서 "아시아 최초와 한국인 최초라는 타이틀이라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큰 자부심이 될 것 같다."고 PGA신인상 수상 소감을 전했다.

IOC, 욕일기 금지 요청에 모호한 답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우리 정부가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경기장에서 욕일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사안별'로 고려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12일 '뉴시스'가 AP통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IOC는 성명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스포츠 스타디움은 그 어떤 정치적 시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림픽 경기 기간 동안 (욕일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때, 우리는 사안별로 (금지 여부를) 살펴볼 것(When concerns arise at Games time we look at them on a case by case basis)"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지난 11일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앞으로 보낸 장관 명의의 서한에서 도쿄올림픽조직위의 욕일기 허용 입장에 대한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며, 욕일기 사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서한은 "욕일기가 19세기 말부터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 군대의 깃발이다. 현재도 일본 내 극우단체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시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유럽인들에게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가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욕일기는 당시 일본의 침략을 당했던 한국과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상기시키는 명백한 정치적 상징물임을 지적하고, 국제축구연맹(FIFA)에서도 이미 욕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도 도쿄올림픽조직위가 욕일기 사용을 허용하는데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상대국이 싫어하는 것을 굳이 스포츠의 장으로 가져와 도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IOC는 올림픽 현장에서 "올림픽 경기장 내에서는 어떤 종류의 정치적, 종교적 혹은 인종적 선전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남북한 합동 팀의 '통일기'에 독도가 그려진 것을 일본 측이 문제시 삼자 사용 중지를 명령한 적도 있다.

부엌 & 화장실 Remodeling 전문 회사

각종 최신 캐비닛, Stone Counter Top 취급합니다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 전지역!
신용/정직/좋은 가격 & 실력있는 회사!!

CA Lic #:1051205

Pine Tree Construction 주정부 면허회사
필립 안에게 전화 주세요 **714.345.8768** 36 Discovery #100
Irvine, CA 92820